

| 국제동향 |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이사회 및 워크숍 참석

손욱이 국제협력 전문위원

'19.3.7.(목)~8.(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남미 퀴라소에서 개최된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이사회 및 워크숍에 참석했다.

*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은 전 세계 70여 개국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위원회들의 국제기구로, 우리 위원회는 '09년부터 이사국으로 활동 중

3월 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그간 국제노사정기구연합의 활동보고서, '19~'21년도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의장 및 사무부총장 선출, 국제노동기구(ILO)와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의 협력 활동,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신규 웹사이트 구축, 국제노사정기구연합의 미래 방향설정 등을 안건으로 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결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19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 개최 관련 지원에 대한 논의가 안건에 포함되어, '19년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에 대한 개최 계획 개요를 발표하였다.

이후,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의장 및 사무총장은 한국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리더십을 훌륭하게 평가하고, 성공적인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중화전국총공회 대표단은 지난 총회 시(18.9월, 프랑스 파리) 논의했던 양국의 협력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경사노위 대표단을 중국에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사회적 대화 관련 장기적인 정책 교류와 의견 교환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튿날 열린 디지털 혁명관련 워크숍에서는 '인류의 미래에 디지털 혁명이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각국의 디지털 혁명관련 미래 일자리에 대한 사전 대응책이 소개되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의제별위원회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가 '19.2.18. 체결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대한 기본 합의문」과 디지털 혁명과 관련 그간의 위원회의 활동 자료를 소개했다.

워크숍에서, 디지털화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부문별 강도는 다르지만 이미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사회고용 및 일자리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공공정책, 특히 교육부문에서의 디지털화가 강조되었다.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장에서 디지털 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기 디지털화 교육을 통해 디지털화에 대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경제 특성의 변화로 인해 신흥국에서는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회사가 설립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신생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더불어 디지털화로 인해 국경의 개념이 사라질 가능성도 제기 되었으며, 신흥국에서는 이민의 형태가 진화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인한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요소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성공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과 디지털화 대응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공조 가능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